

지자체가 선정한 현대팔경에 나타난 경관 선호 양상*

소현수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부교수

A Local Governments' Preferences in Selecting Modern Eight Scenic Landscapes

So, Hyun-Su

Associate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e followings are the landscape preference aspects from the 816 landscapes(景, Kyung), which comprise the 78 modern Palkyungs, presented by the 78 local governments in Korea.

First, the natural environment elements selected as Kyung(景), which are topographical landscapes, mostly consist of mountain elements such as mountains, terrace(臺), rocks and stones and water elements classified as rivers, oceans, and lakes. Natural elements also include old-growth and giant trees such as pines, ginkgos, Japanese cornels and fringe trees, tree-lined streets and forests, and plant elements such as azaleas, rhododendrons, lotuses, reeds, and silver grasses which provide seasonal landscapes. Second, more than half of Kyung, selected as human environment elements, ar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s such as graveyards, mountain fortresses, town fortresses, traditional villages, pavilion in villas, and temples. And it is followed by leisure tourism facilities such as traditional markets, exhibition halls, theme parks, beaches, and food streets, green-based structures such as trails, plazas, parks, and botanical gardens, and industrial heritages such as ranches, abandoned coal mines, stations, ports and bridges. Third, modern Palkyungs include objects not related to the views such as local representative facilities, regional products, and festivals. Fourth, although most of the modern Palkyungs consist of eight, some include 20, 38, or 100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objects of public relations. Fifth, a certain local government makes two modern Palkyungs with different subjects by introducing traditional Palkyung and modern Palkyung altogether. In this case, it presents several modern Palkyungs like by selecting Palkyungs in a limited area. Furthermore, one Palkyung includes numerous place names at a time in some cases. Sixth, Sosangjeonhyeong(瀟湘典型)-style modern Palkyung uses 'NakAn(落雁)' as the name of Kyung. Sosangyusahyeong(瀟湘類似型)-style modern Palkyung expresses 'Hyojong(曉鐘)' and landscape of glow of the setting sun, sunset, night view, dawn, sunrise and depicts cloud, sunset, moon, and snow. There are many Myeongsocheheomhyeong(名所體驗型)-style Palkyungs exhibiting the behavior of tourism and Myeongseunhyeong(名勝型)-style Palkyungs raising the awareness only by the names of the places. Seventh, modern Palkyung's naming styles are diverse, such as using only four letters instead of specifying Kyungmul(景物) or Kyungsaek(景色) in combination with Chinese characters or adding modifiers specializing in places.

Key words: Kyungmul(景物), Kyungsaek(景色), Sosangpalkyung(瀟湘八景), Traditional Palkyung

국문초록

우리나라 78개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제시한 현대팔경 78개와 팔경을 구성하는 816개 경(景)을 통해 본 경관 선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으로 선정된 자연환경 요소는 지형경관인 산, 대(臺), 암, 바위와 같은 산경요소와 하천, 해양, 호소(湖沼)경관으로 구분되는 수경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소나무, 은행나무, 산수유, 이팝나무 등 노거수, 가로수 길과 숲, 그리고 계절 경관을 제공하는

* 본 논문은 201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So, Hyun-S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02504, South Korea, Tel.: +82-2-6490-2848, E-mail : hssu@uos.ac.kr

철쭉, 진달래, 연꽃, 갈대, 억새와 같은 식물요소가 포함된다. 둘째, 인문환경 요소로 선정된 경의 과반수가 묘역, 산성과 읍성, 전통마을, 별서누정, 사찰 등 역사문화유산이다. 다음으로 재래시장, 전시관, 테마파크, 해수욕장, 음식 거리 등 여가관광시설과 산책로, 광장, 공원, 식물원 등 녹색기반시설, 마지막으로 목장, 폐탄광, 철도역, 항구, 다리 등의 산업유산이 경으로 선정되었다. 셋째, 현대팔경에는 지역 대표시설, 특산물, 축제처럼 조망과 관련 없는 대상이 포함되었다. 넷째, 현대팔경의 과반수가 8개 경으로 구성되었지만, 홍보 대상을 늘리기 위하여 20개, 38개, 100개로 구성된 것도 있다. 다섯째, 전래팔경과 현대팔경을 함께 소개하고, 주제를 달리한 두 개의 현대팔경을 만든 경우, 일부 지역으로 한정하여 현대팔경을 선정하는 등 여러 개의 현대팔경을 제시한 지자체가 있다. 또한 한 개의 경에 다수의 장소명을 넣은 경우도 많다. 여섯째, 경의 명칭에 ‘낙안(落雁)’을 사용한 소상전형과 ‘효종(曉鐘)’, ‘낙조’, ‘일몰’, ‘야경’, ‘여명’, ‘일출’을 명칭에 넣고 경관과 구름, 노을, 달, 눈을 표현한 소상유사형 현대팔경, 관광 행태를 드러내는 명소체험형 현대팔경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은 장소의 명칭만으로 인지도를 높인 명소형 현대팔경이다. 일곱째, 현대팔경의 명명 방식은 경물과 경색을 명시한 한자를 조합한 소상팔경식 명명 대신 글자 숫자만 네 개로 맞춘 경우, 장소를 특화하는 수식어를 넣은 경우 등으로 다양했다.

주제어: 경물(景物), 경색(景色), 소상팔경(瀟湘八景), 전래팔경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선조들은 현대 조경의 대상이 되는 ‘경관(景觀)’이라는 용어 대신 경관이 빼어나거나 특색 있는 넓은 지역은 ‘승(勝)’으로, 지역보다 좁은 장소에서 특출하거나 아름다운 경치는 ‘경(景)’이라고 지칭하였다[1]. 중국 북송(北宋)시대에 유래된 ‘소상팔경(瀟湘八景)’이 ‘경’을 대표하는데,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부터 팔경에 대한 기록이 전해진다. 조선시대에 ‘관동팔경’, ‘한양팔경’, ‘단양팔경’처럼 지역의 산수에서 자연미를 발견하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구체적 상황에 이름을 정하여 여덟 가지를 모아놓는 팔경 문화가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팔경은 현재까지도 명맥이 이어지는데, 1996년 이후부터 지자체마다 지역의 경관자원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새로운 팔경을 선정하여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래팔경에 대응하여 지자체가 선정한 것¹⁾을 ‘현대팔경’이라고 구분하고, 현대팔경을 구성하는 ‘경’의 선정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감상의 대상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대상의 아름다움에 다수가 동의하는 경관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공적 자산의 가치를 지니는 현대팔경을 통해서 현대의 경관에 대한 인식과 선호 양상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접근 방향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2. 연구사

전래팔경에 대한 연구는 국문학, 미술사학, 지리학, 조경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었다. An(1997)은 한국팔경시에 대

한 연원과 유입·전개에 대하여 소개하고[2], Go(2003)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제작된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를 연구하였다[3]. 조경학 연구는 Choi(1989)가 경(景)의 개념으로 전통경관의 구조를 제시하면서 시작되고[4], Kang and Kim(1991)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경의 형식을 분류하였으며[5], 본 연구에서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후 지역의 전래팔경을 찾아내고 문헌 분석과 현장조사로 팔경의 경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연구들이 전개되었다[6-9].

본 연구의 대상인 현대팔경 연구는 지역의 대외 이미지 양양 및 관광 홍보를 위해 현대팔경을 선정하였다고 제시한 Kim and Bae(2006)로부터 시작되었다[10]. Kim and Ahn(2009)은 11세기부터 현재까지 구축된 대구·경북지역 팔경 20개소의 시대별 변화 양상과 조망각도 및 시점장 등 경관구조를 분석하고[11], Song and Son(2011)은 경상남도 시·군의 전래팔경과 현대팔경을 비교하고 유형 분류 및 조망 특성을 도출하였다[12]. 또한 Jung and Hwang(2019)은 근현대기에 설정된 고군산 선유팔경을 구성하는 경의 변화를 짚어본 후 불완전한 체계를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며 완결성과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13]. 이렇게 전래팔경을 대상으로 축적된 연구 성과에 비하여 현대팔경 연구는 소수이다. 또한 2006년에 진행된 연구 이래로 전국 지자체의 현대팔경을 대상으로 하여 경관 선호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 연구는 없다.

II.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전래팔경을 제외하고 현대팔경을 추출하는 작업으로 시작하였다. 시, 군, 구와 같

이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을 대표하는 현대팔경으로 한정한다. '○○9경', '○○12경' 등 경의 개수와 상관없이 '8경(八景)'이라고 통칭하며, 팔경을 구성하는 하나하나를 '경(景)'이라고 지칭한다. 이때, 전래팔경은 '팔경', 현대팔경은 '8경'이라고 표시하여 구분한다.

2020년 3월 현재 전국 78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추출한 현대팔경 78개와 여기에 부속된 개별 경 816개소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Table 1). 대부분 하나의 지자체에 하나의 현대팔경이 있으나 인천광역시 서구와 계양구가 「아라뱃길 수향8경」을 함께 선정하였으며, 경기도 의왕시는 「도시8경」과 「자연8경」이라는 두 개의 현대팔경을 만들었다. 또한 대다수의 지자체가 행정구역 명칭을 팔경 앞에 붙여서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지만, 예외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소8경」, 강원도 화천군 「감성비경38선」, 전남 보성군 「구경하고싶은9경」과 울산광역시 동구 「소리9경」은 지역성을 대표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2. 연구의 과정과 내용

본 연구는 지자체가 선정한 현대팔경을 구성하는 경들의 명칭에서 대상이 가진 속성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전래팔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현대팔경에 대한 첫 번째 분석은 팔경을 구성하는 개별 '경'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경이 지칭하는 대상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분류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경관으로 선호된 요소들을 고찰하였다. 이때, 경물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빈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나의 경에 두 개 이상의 공간과 대상이 포함된 경우 경관성이 높은 대표적인 한 가지를 설정하여 집계하였다. 또한 자연환경 요소에 해당되는 경이 산경과 수경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에 제시된 해당 경에 대한 소개 글과 사진을 토대로 하여 유형을 선택하였다²⁾.

다음으로 경의 선정 목적과 기능을 분석하였는데 '경'은 관찰자가 대상체를 보거나 대상체에서 관찰되었던 지점이라는

Table 1. The Study Sites as Modern Palkyung

Location	The Names of Palkyung of Local Governments
Seoul	(Guro-gu)Guro 9Kyung, (Seongbuk-gu)Seongbuk 100Kyung
Busan	(Gangseo-gu)Gangseo Palkyung, (Yeongdo-gu)Yeongdo Palkyung, (Gijang-gun)Gijang Palkyung
Daegu	(Dalseong-gun)Dalseong 12Kyung
Incheon	(Seo-gu·Gyeyang-gu)Ara Waterway Suhyang Palkyung, (Ganghwa-gun)Ganghwa Palkyung
Gwangju	(Buk-gu)Buk-gu Palkyung, (Seo-gu)Seo-gu Palkyung
Daejeon	(Yuseong-gu)Myeongso Palkyung
Ulsan	(Dong-gu)Sori 9Kyung
GyeongGi-do	(Gwangmyeong-si)Gwangmyeong Palkyung, (Guri-si)Guri 9Kyung, (Seongnam-si)Seongnam 9Kyung, (Siheung-si)Siheung 9Kyung, (Anseong-si)Anseong Palkyung, (Anyang-si)Anyang Palkyung, (Yongin-si)Yongin Palkyung, (Uiwang-si)City Palkyung, (Uiwang-si)Nature Palkyung, (Icheon-si)Icheon 9Kyung, (Gapyeong-gun)Gapyeong Palkyung
Gangwon-do	(Wonju-si)Wonju8Kyung, (Taebaek-si)Taebaek Palkyung, (Goseong-gun)Goseong Palkyung, (Yanggu-gun)Yanggu Palkyung, (Yangyang-gun)Yangyang Palkyung, (Inje-gun)Inje Palkyung, (Cheorwon-gun)Cheorwon 9Kyung, (Hongcheon-gun)Hongcheon 9Kyung, (Hwacheon-gun)38 Sensible Views
Chungcheongbuk-do	(Danyang-gun)Secondary Eight Beauties of Danyang, (Jecheon-si)Jecheon 10Kyung
Chungcheongnam-do	(Gongju-si)Gongju 10Kyung, (Nonsan-si)Nonsan Palkyung, (Boryeong-si)Boryeong 9Kyung, (Seosan-si)Seosan 9Kyung, (Cheonan-si)Cheonan 12Kyung, (Geumsan-gun)Geumsan Palkyung, (Dangjin-si)Dangjin 9Kyung, (Buyeo-gun)Buyeo 10Kyung, (Secheon-gun)Secheon 9Kyung, (Yesan-gun)Yesan 10Kyung, (Cheongyang-gun)Cheongyang 10Kyung, (Taeon-gun)Taeon Palkyung, (Hongseong-gun)Hongseong Palkyung
Gyeongsangbuk-do	(Mungyeong-si)Mungyeong Palkyung, (Pohang-si)Pohang 12Kyung, (Yecheon-gun)Yecheon Palkyung, (Cheongdo-gun)Cheongdo Palkyung
Gyeongsangnam-do	(Geoje-si)Geoje 9Kyung, (Gimhae-si)Gimhae 9Kyung, (Miryang-si)Miryang Palkyung, (Sacheon-si)Sacheon Palkyung, (Yangsan-si)Yangsan Palkyung, (Jinju-si)Jinju Palkyung, (Namhae-gun)Namhae 12Kyung, (Sancheong-gun)Sancheong 9Kyung, (Uiryeong-gun)Uiryeong 9Kyung, (Hadong-gun)Hadong 10Kyung, (Hamyang-gun)Hamyang Palkyung, (Hapcheon)Hapcheon Palkyung
Jeollabuk-do	(Namwon-si)Namwon 20Kyung, (Jeongeup-si)Jeongeup 9Kyung, (Sunchang-gun)Sunchang 10Kyung, (Wanju-gun)Wanju 9Kyung
Jeollanam-do	(Gwangyang-si)Gwangyang9Kyung, (Mokpo-si)Mokpo 9Kyung, (Yeosu-si)Yeosu 10Kyung, (Gurye-gun)Gurye 10Kyung, (Damyang-gun)Damyang10Kyung, (Boseong-gun)Nine Scenic Views, (Younggwang-gun)Younggwang 9Kyung, (Jangseong-gun)Jangseong Palkyung, (Hampyeong-gun)Hampyeong Palkyung, (Haenam-gun)Haenam Palkyung, (Hwasun-gun)Hwasun Palkyung

이해[4]로부터 경과 조망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이것은 조망을 통해서 자연과 인공이 서로 전이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진행을 위해서 개별 경의 명칭에서 조망점과 조망대상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분류하였다. 또한 조망과 관련 없는 경의 설정은 현대팔경에서 나타나는 특성[12] 중 하나로서 구체적 사례를 고찰하여 자원의 홍보 기능을 정리하였다.

두 번째 분석 대상은 '경'의 집합체로서 현대팔경이며, 팔경의 구성, 형식, 그리고 명명 방식을 정리하여 현대팔경의 구조를 이해하였다. 먼저 팔경의 구성은 지자체가 보유한 팔경의 특정 양상과 팔경을 구성하는 경의 개수를 숫자로 표기하여 목록화한 후 경이 지칭하는 대상의 관계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경의 대상에서 나타나는 팔경의 형식을 소상전형(瀟湘典型), 소상유사형(瀟湘類似型), 명소체험형(名所體驗型), 명승형(名勝型)으로 분류하였다[5]. 여기서 소상전형은 소상팔경의 경 뒷부분을 구성하는 경물과 경색 요소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앞부분을 구성하는 장소만 바꾼 것이며, 소상유사형은 「경포팔경」의 '녹두일출(菰莖日出)', '홍강야우(紅粧夜雨)', '중봉낙조(甌峰落照)'처럼 해당 장소에 새로운 경물과 경색 요소가 조합된 것이다. 또한 명소체험형은 장소와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조합된 것이고, 명승형은 「단양팔경」의 '도담삼봉(嶋潭三峰)', '석문(石門)', '구담봉(龜潭峰)'과 같이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의 명칭을 경으로 선정한 경우이다. 연구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전래팔경의 형식으로부터 변형된 현대팔경의 명명 방식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현대팔경에 나타난 경관 선호 양상을 확인하려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전체 연구 대상 중에서 분석 항목과 관련되는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제시하며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적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III. 결과 및 고찰

1. 현대팔경을 구성하는 경의 내용

1) 경으로 선정된 자연환경 요소

전래팔경 선정처의 입지는 인공시설물형 장소보다 자연지형에 많이 선정되었지만[5], 본 연구 결과 현대팔경을 구성하는 경은 인문환경 요소가 461개소로서 자연환경 요소에 해당하는 355개소보다 많았다. 경으로 선정된 자연환경 요소는 수경 요소 141개소, 산경 요소 131개소, 식물 요소 57개소, 섬 20개소, 들판 4개소, 동물 요소 2개소였다.

(1) 산경 요소

산경에는 '마니산(강화8경)', '무등산(북구8경)', '봉래산(영도8경)', '사명산(양구8경)', '유달산'·'노적봉(목포9경)', '비로봉(원주8경)', '대청봉(인제8경)', '지리산 천왕봉(산청9경)' 등 초점 경관이 되는 원경의 산과 봉우리, '오봉산 임경대(양산8경)', '소학대(기장8경)', '봉황대(의령9경)'와 같은 대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근경에서 볼 수 있는 '오봉산 병풍바위(자연8경)', '부소산 낙화암(부여10경)', '칠성암(단양제2팔경)', '송보살 터거북바위(성북100경)', '노성산 말버리 바위(이천9경)', '화악산 촛대바위(감성비경38선)', '울산바위(고성8경)'가 포함되었다. 이밖에도 입체적 지형요소로서 '광명동굴(광명8경)', '일광굴(단양제2팔경)'과 수직 벽면이 강조된 '뒤버리'·'새버리(진주8경)', '화순적벽(화순8경)', '공암봉벽(청도8경)', 기타 '비슬산 암괴류(달성12경)', '송대소 주상절리(철원9경)' 등 독특한 석(石) 경관이 포함되었다.

(2) 수경 요소

가장 많은 수의 수경에는 '북한강(감성비경38선)', '경호강(산청9경)', '섬진강(하동10경)', '금강(공주10경)' 등 큰 물줄기가 경으로 선정되었으며, 다음 위계에 해당하는 '성북천'·'정릉천(성북100경)', '남대천(양양8경)', '내린천(인제8경)', '탄천변(성남9경)', '광명한내(광명8경)'가 있다. 이러한 물의 흐름보다 입체적 지형이 강조되는 계곡이 수경요소 중에서 가장 많았다. '장안사계곡(기장8경)', '백운산계곡(자연8경)', '내원사계곡(양산8경)', '대원사계곡(산청9경)', '홍류동계곡(합천8경)', '송계계곡(제천10경)', '뱀사골계곡'·'구룡계곡(남원20경)' 등 모든 시군에서 계곡이 선정되었다. 특히 「문정8경」에는 '새재계곡'·'선유동계곡'·'쌍룡계곡'·'용추계곡'·'운달계곡'과 같이 8경 중에서 다섯 개가 계곡이었으며, 「광양9경」에 선정된 '백운산4대 계곡'은 성불계곡, 동곡계곡, 어치계곡, 금천계곡을 포괄한 명칭이다. 계곡과 유사한 전통문화경관으로서 '곡운구곡(감성비경38선)', '용하구곡(제천10경)', '용추구곡(가평8경)', '지천구곡(청양10경)'이 포함되었다.

또한 흐르는 물의 일부 구간에 한정된 '두타연(양구8경)', '순담(철원9경)', '용담'·'비파담'·'파서탕(용인8경)', '십이선녀탕(인제8경)', '시례호박소(밀양8경)', '가마골용소(담양10경)'와 '후곡약수터(양구8경)', '방동약수(인제8경)', '가칠봉삼봉약수(홍천9경)', '벌떡약수(감성비경38선)' 유형이 있다. 역동적 수경관을 제공하는 '삼부연폭포'·'직탕폭포'·'매월대폭포(철원9경)', '홍연폭포(기장8경)', '대승폭포(인제8경)', '내연산12폭포(포항12경)', '지리산 불일폭포(하동10경)', '황계폭포(합천8경)', '죽령폭포(단양제2팔경)', '12폭포(금산8경)', '구룡폭포(남원20경)', '수락폭포(구례10경)' 등 많은 폭포가 포함되었다.

바다와 관련하여 '서해(수향8경)', '거제 해금강(거제9경)',

‘여수밤바다(여수10경)’와 ‘다도해 전경(목포9경)’, ‘장군목(순창10경)’, ‘호미곶 일출(포항12경)’과 같은 독특한 지형, 그리고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여차홍포 해안비경(거제9경)’, ‘상주 은모래비치’·‘송정술바람해변(남해12경)’, ‘만리포’·‘신두사구’·‘몽산해변(태안8경)’처럼 다양한 해안 경관이 해당되었다.

머물러 있는 물의 형태로서 ‘금광호수’·‘고삼호수(안성8경)’, ‘송지호(고성8경)’, ‘파로호(양구8경)’, ‘경천호(문경8경)’, ‘진양호(진주8경)’, ‘탑정호(논산8경)’, ‘보령호(보령9경)’, ‘예당호(예산10경)’가 대표적이고, ‘의림지(제천10경)’, ‘궁남지(부여10경)’, ‘천호지(천안12경)’, ‘세랑지(화순8경)’, ‘학저수지(철원9경)’와 ‘달성습지(달성12경)’, ‘대암산용늪(인제8경)’, ‘용양늪(철원9경)’이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하천경관의 강(江), 천(川), 계(溪), 특정 지점을 이르는 탄(灘), 폭(瀑), 그리고 흐름이 멈춰 고여 있는 호소경관의 호(湖), 연(淵), 담(潭), 추(湫), 지(池)와 해안경관의 곳(串), 정(汀)이라는 전통 수경관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14].

(3) 식물 요소

교목에 해당하는 ‘안면송림(태안8경)’, ‘석송령(예천8경)’, ‘하동포구 백사청송(하동10경)’, ‘반룡송’·‘산수유마을(이천9경)’, ‘충효동 왕버들(북구8경)’, ‘위양못 이팝나무(밀양8경)’, ‘광양읍수와 이팝나무(광양9경)’,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길상사내 보호수’·‘아름다운 나무(성북100경)’, ‘성흥산 사랑나무(부여10경)’가 선정되었다. ‘내장산 단풍터널(정읍9경)’, ‘은행나무길’·‘플라타너스길’·‘전나무길(성북100경)’, ‘은행나무길’·‘해산 자작나무(감성비경38선)’처럼 가로수길이 포함되었는데, 특히 ‘충남대학교 벚꽃길(명소8경)’, ‘옥포 벚꽃길(달성12경)’, ‘가실벚꽃(용인8경)’, ‘선진리성 벚꽃(사천8경)’, ‘화개장터십리벚꽃(하동8경)’, ‘백리벚꽃길(합천8경)’, ‘정읍천벚꽃길(정읍9경)’에서 벚꽃에 대한 현대인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다³⁾. 또한 숲으로 ‘남해물건리 방조어부림(남해12경)’, ‘상림(함양8경)’, ‘연동리 숲정이(화순8경)’, ‘마량리 동백나무숲(서천9경)’, ‘옥룡사지 동백나무숲(광양9경)’, ‘축령백림(가평8경)’, ‘축령산 편백숲(장성8경)’이 있다.

관목으로 봄 경관을 제공하는 ‘황매산 철쭉(산청9경)’, ‘형제봉 철쭉(하동10경)’, ‘신어산 철쭉(김해9경)’, ‘와룡산 철쭉(사천8경)’, ‘대봉 철쭉(함양8경)’, ‘종남산 진달래(밀양8경)’가 있고, 초본에는 ‘신성리 갈대밭(서천9경)’과 ‘재약산 억새(밀양8경)’, 그리고 연꽃을 감상하는 ‘피향정 연꽃(정읍9경)’, ‘관곡지 연향(시흥9경)’, ‘유호연화(청도8경)’, ‘서오지리 연꽃단지(감성비경38선)’가 있다. 그밖에 ‘비슬산 참꽃 군락(달성12경)’, ‘왕지봉 배꽃(천안12경)’, ‘대덕산·금대봉의 야생화(태백8경)’와 ‘화개동천 야생차밭(하동10경)’ 등 숲, 노거수, 화관목과 초본

으로 다양한 식생경관이 경의 대상이 되었다.

2) 경으로 선정된 인문환경 요소

인문환경에 해당하는 경을 기능에 따라서 역사문화유산, 여가관광시설, 녹색기반시설, 산업유산으로 분류하였다⁴⁾. 여기서 역사문화유산은 유·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 정원 유적, 비지정 문화재와 관련된 전통공간과 근대 문화유산 및 현대에 조성된 역사기념공간을 포함하였다. 여가관광시설은 스포츠 시설, 온천, 유원지, 놀이공원, 관광 편의 시설과 함께 여가를 위한 교양시설과 재래시장과 쇼핑몰 등 상업시설을 포함하였다. 또한 녹색기반시설은 정원, 공원, 녹지, 하천, 가로, 광장 등이 해당되고, 산업유산에는 항만, 공장, 철도·운송·수운 시설, 교통 시설을 포함하였다.

분류 결과 전통자원과 근현대자원 205개소로 구성된 역사문화유산이 인문환경 요소의 44.5%를 차지하여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여가관광시설이 120개소로서 26.0%에 해당되었으며, 녹색도시기반시설 80개소, 산업유산 33개소의 순서로 경이 선정되었다.

(1) 역사문화유산

역사문화유산은 왕릉과 묘역, 방어·군사시설, 전통주거공간, 별서·누정, 사찰 및 불상·탑으로 분류된다. 경의 숫자가 가장 많은 「성북100경」은 근현대자원 10개소, 전통자원은 32개소로 역사문화유산에 집중되었으며, 「기장8경」, 「용인8경」, 「도시8경」, 「가평8경」, 「양구8경」, 「거제9경」, 「광양9경」을 제외한 모든 현대팔경에 역사문화유산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보존 관리가 잘된 왕릉과 묘역인 ‘정릉’·‘의릉(성북100경)’, ‘동구릉(구리9경)’, ‘백제왕릉원(부여10경)’, ‘송산리고분군(공주10경)’, ‘수로왕릉(김해9경)’, ‘구형왕릉(산청9경)’과 ‘용두동 지석묘(서구8경)’, ‘고인돌유적(화순8경)’, ‘다락골 줄무덤성지(청양10경)’가 있다. 방어·군사시설로서 ‘서울성곽’·‘북한산성곽(성북100경)’, ‘장기읍성(포항12경)’, ‘사천읍성(사천8경)’, ‘해미읍성(서산9경)’, ‘공산성(공주10경)’, ‘교룡산성(남원20경)’, ‘노성산성(논산8경)’, ‘온달산성(단양제2팔경)’과 ‘충청수영성(보령9경)’, ‘갑곶돈대’·‘광성보’·‘초지진(강화8경)’, ‘목포진(목포9경)’과 같이 지역에 구조물이 남겨진 읍성과 산성, 병영이 포함되었다.

전통주거공간은 ‘남평문씨본리세거지(달성12경)’, ‘금당실 전통마을(예천8경)’, ‘추사고택(예산10경)’, ‘몽심재(남원20경)’, ‘훈몽재(순창10경)’, ‘남명조식유적지(산청9경)’, ‘계백장군유적지(논산8경)’, ‘만해 한용운생가’·‘백야 김좌진장군생가(홍성8경)’, ‘백산 안희제생가(의령9경)’ 등 전통마을과 역사적 인물의 생가와 유적지가 포함된다. 별서·누정으로서 ‘소쇄원(담양10경)’, ‘환벽당’·‘풍암정(북구8경)’, ‘초간정 및 원림(예천8

경), '천학정'·'청간정(고성8경)', '광한루원(남원20경)', '영남루'·'월연정(밀양8경)', '화림풍류(함양8경)', '애련정(이천9경)', '합강정(인제8경)', '귀래정(금산8경)' 등이 있다.

한 개의 팔경에 여러 개의 사찰이 선정된 사례로서 '길상사'·'보문사'·'보타사(성북100경)', '보문사'·'적석사'·'전등사(강화8경)', '관촉사'·'쌍계사'·'개태사(논산8경)', '석남사'·'철장사 대웅전(안성8경)', '송광사'·'화암사'·'위봉사(원주9경)'는 세 개씩 해당되며, 구룡사·'상원사(원주8경)', '개심사'·'간월암(서산9경)', '갑사'·'마곡사(공주10경)', '실상사'·'만복사지(남원20경)', '화엄사'·'오산과 사성암(구례10경)'은 두 개가 선정된 경우이다. 그밖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들이 현대팔경에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운천사 마애여래좌상(서구8경)', '마애여래삼존상(서산9경)', '신계리'·'정령치 마애여래불(남원20경)', '미륵불상(원주8경)', '서암석불(함양8경)'과 '정림사지5층석탑(부여10경)'과 같이 불상과 탑이 경에 포함되었다.

(2) 여가관광시설

여가관광시설은 교양시설, 상업시설, 볼거리형 테마 관광지, 놀거리형 유원지, 먹거리형 방문지로 구분된다. 먼저 교양시설로 '간송미술관'·'한국가박물관'·'아리랑아트홀(성북100경)', '황금박쥐전시관'·'함평양서파충류 전시관(함평8경)', '중앙도서관(도시8경)'과 상업시설로서 '구로시장'·'디큐브파크(구로9경)', '현대백화점'·'보문재래시장(성북100경)', '농수산물 도매시장(구리9경)', '인심좋은 유성전통5일장(명소8경)', '안양1번가(안양8경)' 등이 경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볼거리형 테마 관광지에 해당하는 '청학동 삼성궁(하동10경)', '백제문화단지'·'서동요 테마파크(부여10경)', '남사예담촌'·'동의보감촌(산청9경)', '마비정벽화마을(달성12경)', '광양매화마을(광양9경)', '통일전망대(고성8경)', '외도보타니아(거제9경)', '죽녹원(담양10경)'이 있으며, 관광용 보행교인 '천장호 출렁다리(청양10경)', '폰툰다리'·'숲으로다리(감성비경38선)', '백아산하늘다리(화순8경)', '장항스카이워크(서천9경)'는 걷기 체험을 유도한다. 놀거리형 유원지인 '대천해수욕장'·'무창포해수욕장(보령9경)', '덕산온천(예산10경)', 그리고 먹거리형 '입장 거봉포도마을(천안12경)', '순창전통고추장마을(순창10경)', '돌다리곱창골목(구리9경)', '정자동카페거리(성남9경)' 등이 있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서 지자체가 관광과 여가를 위한 방문지로 경을 선정한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즉 현대팔경은 장소마케팅을 위해 동원되는 문화관광상품의 한 유형이다[12].

(3) 녹색기반시설

녹색기반시설은 선형의 가로 및 도로, 면적인 광장이나 공원으로 구성되는데, 테마를 가진 산책로와 길이 다수 선정된 것

이 특징이다. '안양천 산책로'·'명품 구로올레길(구로9경)', '북악스카이웨이'·'영화의 거리(성북100경)', '북한강길'·'한뼘길(감성비경38선)', '천안삼거리'·'병천순대거리(천안12경)',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호미반도 해안둘레길(포항12경)', '전설의 쌍화차거리(정읍9경)', '자전거길'·'예향천리마실길(순창10경)', '금오도비렁길(여수10경)'이 해당된다. 또한 '개운산 숲속의 쉼터'·'도망봉 쉼터(성북100경)', '75광장(영도8경)', '아라리오광장(천안12경)'이 있고, 법에서 규정하는 생활권공원으로서 근린공원, 도립공원과 생태공원, 기념공원, 유적공원 등 다양한 주제공원과 식물원, 수목원, 산림욕장, 자연휴양림이 현대팔경에 포함된다.

(4) 산업유산

산업유산에는 목장, 염전, 공단 등 산업 현장과 철도·운송·수운 시설, 항만, 그리고 도로와 다리 등 교통시설이 포함되었다. 먼저 '서산 한우목장(서산9경)', '천일염전(영광9경)', '창선교와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남해12경)'은 독특한 경관을 제공하고 '철암역두선탄장(태백8경)'은 폐쇄한 탄광을 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킨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로9경)', '포스코(포항12경)', '현대중공업 엔진소리'·'신조선 출항 뱃고동소리(소리9경)'는 지역을 대표하는 노동 현장이다. 더불어 여객 운수 및 교통수단과 관련된 'KTX광명역(광명8경)', '돌곶이역(성북100경)', '아라린천여객터미널'·'아라김포여객터미널(수항8경)'은 경관적 의미보다 랜드마크로서 역할이 크다. 반면에 '남당항'·'궁리포구(홍성8경)', '남애항(양양8경)', '서산 삼길포항(서산9경)', '포항운하(포항12경)', '평화의 댐(감성비경38선)', '가창댐(달성12경)', '도개비도로(도시8경)', '백수해안도로(영광9경)'는 관광지 기능을 한다. 또한 '서해대교(당진9경)', '영도대교(영도8경)', '거가대교(거제9경)', '목포대교(목포9경)', '창선-삼천포대교'·'남해대교'·'창선교(남해12경)', '광양이순신대교(광양9경)', '여수 이순신대교(여수10경)', '엑스포다리(명소8경)'처럼 교통 시설로서 다리 구조물이 인상적인 경관요소로 선정되었다.

3) 경의 선정 목적과 기능

(1) 심미적 경관 조망

경의 명칭에 '풍경', '절경', '비경'이라는 표현이 붙은 사례에서 아름다운 장소를 지칭하려는 경의 선정 목적이 드러난다. '석장리 풍경(공주10경)', '월연정 풍경(밀양8경)', '내연산 12폭포 비경(포항12경)', '여차·홍포해안 비경(거제9경)', '경호강 비경(산청9경)', '용추비경(함양8경)' 등인데, 승경을 특별하게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그밖에 조망 목적을 드러내는 전래팔경 '전주십경'의 '곤지망월(坤止望月: 곤지산에서 달을 바라본다)'처럼 조망점과

조망대상으로 경의 명칭을 구성한 현대팔경이 일부 있다. '소래 산망주(蘇萊山望周, 시흥9경)'와 '운악망경(雲岳望景, 가평8경)', '금대지리(金臺智異, 함양8경)'는 전통적 방식을 따른 명칭이며, '북한산에서 본 성북(성북100경)', '경전철에서 바라본 가야유적(김해9경)', '섬호정에서 바라본 섬진강(하동10경)'은 설명적으로 조망점과 조망대상을 지칭하였다. 또한 '구봉산 전망대(광양9경)'는 조망점을 지칭한 경우이며, '정취암 조망(산청9경)'과 '조비산 조망(용인8경)'은 조망대상을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여기서 산이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조망점이기 때문이다[12]. 대부분의 현대팔경은 한 지점을 경의 명칭으로 사용하였지만, '안양천 산책로(구로9경)', '절영해안 산책로(영도8경)', 방파제와 제방을 지칭한 '제방길주(당진9경)', '삼십리방 낙동제(강서8경)'처럼 선형의 연속적 경관을 선정한 경우도 다수 있다.

(2) 공감각적 경관 체험

'관곡지연향(시흥9경)'은 은은한 연꽃의 향기를 체험하고, 소상팔경에서 저녁 종소리를 지칭하는 '모종'으로부터 유래된 '운문효종(청도8경)'은 새벽 종소리에 착안하였다. 특히 울산광역시 '마골산 숲 바람소리', '옥류천 계곡 물소리', '주전해변 몽돌 파도소리', '대왕암공원 몽돌물 흐르는 소리', '동측사 새벽 종소리', '현대중공업 엔진소리', '신조선 출항 뱃고동소리', '울기등대 무산소리'를 경으로 선정함으로써 자연과 인공 환경 속 청각적 경관 요소로 '소리9경'을 만들었다.

(3)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전래팔경이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하고 체험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면, 현대팔경은 이러한 목적에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앞서 인문환경 요소의 유형에서 고찰하였듯이 광장, 공원과 같은 녹색기반시설, 상업시설, 교양시설, 다양한 테마 관광지를 포함한 여가관광시설, 그리고 산업유산 중에는 특정 용도가 있는 공간과 지역의 공공시설이나 랜드마크 기능을 하는 구조물이 있다. 특히 '성북100경'에는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 관공서, 종교시설, 주거단지, 호텔까지 포함한다. '수향8경'은 인천광역시 대표 사업인 아라뱃길을 홍보한 경우이다.

지역 특산물인 '예산 사과(예산10경)', '입장 거봉포도마을(천안12경)', '순창전통고추장마을(순창10경)'과 새롭게 조성된 '둘다리곰장골목(구리9경)'과 '병천 순대거리(천안12경)'는 경관과 관련 없다. 이것은 '북한산 산신제(성북100경)', '흥타령축제(천안12경)', '함평나비축제(함평8경)'와 같은 일시적 이벤트나 '천안종합휴양관광지(천안12경)', '울포해수욕장 관광지(구경하고 싶은9경)', '간현관광지(원주8경)', '벽계관광지(의령9경)', '백마강수상관광(부여10경)'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 볼거리와 먹거리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목적이 부각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팔경에서 해안형과 내륙-자연형, 유적형이 주류를 이루며 생활양식형과 내륙-도시형 팔경의 비중이 줄었다고 파악된 바 있다[12].

2. 현대팔경의 구조

1) 팔경의 구성

(1) 복수의 팔경 선정

강릉시에 '임영팔경'과 '경포팔경'이 전래되는 것처럼 한 지자체가 '복수의 팔경'을 홍보한 경우가 있다. 충청북도 영동군은 전래된 '양산팔경'과 '한천팔경'을 그대로 전승하였으며, 단양군은 '단양제2팔경'을 새로 선정하여 현대인의 선호를 반영하였다. 그밖에 주제를 달리한 현대팔경의 사례로서 성남시의 '성남9경'과 '벚꽃8경', 의왕시의 '도시8경'과 '자연8경'이 해당된다. '도시8경'은 녹색도시기반시설인 '청계휴먼시아 수변공원', '자연학습공원', '문화예술로'와 여가관광시설인 '철도박물관', '성 라자로마을', '중앙도서관', 그리고 '도깨비 도로'와 '의왕시청'이며, '자연8경'에는 '모락산', '오봉산 병풍바위', '왕송호수', '백운호수', '백운산계곡'이라는 산경 및 수경 요소와 함께 '청계사', '임영대군 사당', '하우현성당'처럼 주변 자연경관이 우수한 역사문화유산을 포함하고 있다.

(2) 경중경으로 강조한 팔경

'관동팔경'의 '죽서루(竹西樓)'와 '죽서루팔경'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전래팔경을 구성하는 하나의 경에 한정된 팔경을 선정하는 방식인 '경중경(景中景)'의 구조[15]가 현대팔경에서도 나타난다. '남해12경'을 구성하는 '남해 금산과 보리암'과 관련하여 '금산38경'이 있고, '남원9경'의 '광한루원'과 관련된 '광한루나들이8경', 하동군의 '하동8경'중에서 '화개동천 야생차밭'과 '다원8경'이 해당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청계천8경',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금정산8경', 경상북도 청송군의 '주왕산9경', 전라북도 무주군의 '구천동33경', 부안군의 '변산8경', 전라남도 신안군의 '홍도10경', 완도군의 '금당8경'은 산, 계곡, 해안, 섬 등 지역의 핵심 경관에 대한 전달력을 높인 사례이다.

(3) 팔경을 구성하는 경의 숫자

전래팔경에서도 9경, 10경, 12경과 같이 8개가 아닌 숫자로 경을 선정하기도 하였으나, 8경이 가장 일반적인 경관 인식 체계였다[12]. 본 연구 대상지에서 8개의 경으로 구성된 현대팔경이 전체 78개처 중에서 39개처로서 50%를 차지하고, 9경 22개처, 10경 10개처, 12경은 4개처가 해당된다. 그밖에 '남원20경', '감성비경38선', '성북100경'은 다수의 경을 선정하므로

써 관광지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4) 복수의 대상을 지칭한 경

「구로9경」은 「푸른수목원 · 향동기차길」, 「정선옹주 묘역 · 궁동생태공원」,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이씨레물리노공원」으로 설정되어서 '9경'이지만, 실제 12개 장소를 지칭한다. 「포항12경」은 「철길숲&불의정원」, 「장기읍성&유배문화체험촌」, 「영일대&포스코 야경」을 선정하여 15개 장소를 포함한다. 「완주9경」도 「대아수목원 · 대아호」, 「송광사&벚꽃길」, 「위봉사&위봉폭포&위봉산성」, 「삼례문화예술촌&비비정」으로 15개 장소를 선정하였다. 「남해12경」은 「남해 금산과 보리암」, 「남해 가천 암수바위와 남면해안」, 「망운산과 화방사」, 「호구산과 용문사」,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과 물미해안」, 「남해대교와 남해 충렬사」, 「창선교와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이 두 곳씩 지칭하였다.

그밖에도 「금당실 전통마을과 송림 · 초간정 및 원림(예천8경)」, 「오리 이원익종택과 관감당(광명8경)」, 「홍주성과 여하정(홍성8경)」, 「무성서원과 상춘공원(정읍9경)」, 「일림산 · 용추계곡」, 「바람의 언덕과 신선대(거제9경)」, 「옥녀봉과 금강(논산8경)」, 「공꽃이 · 내도(거제9경)」, 「거문도 · 백도(여수10경)」, 「금오산 일출과 다도해(하동10경)」, 「합천호와 백리벚꽃길(합천8경)」, 「주암호 · 서재필기념관(구경하고싶은9경)」, 「아라마루 · 아라폭포(수향8경)」, 「충효동 왕버들과 호수생태원(북구8경)」처럼 하나의 가시권에서 인지되는 대상을 포함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영광군에 산재한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원불교 영산성지, 영광 천주교 순교지, 기독교 순교지를 아우르는 '4대종교문화유적지(영광9경)」,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서천9경)」, 「자전거길 · 예향천리마실길(순창10경)」, 「양대 강 발원지와 삼수령(태백8경)」처럼 거리와 상관없이 용도나 시설 등 동일한 주제를 가진 대상지를 하나로 묶은 경우, 「KTX광명역의 낮과 밤(광명8경)」과 같이 동일한 장소의 시간성을 한꺼번에 제시한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2) 팔경의 형식

(1) 소상전형

소상전형은 「강서8경」이 유일한데, 내려앉는 기러기를 지칭하는 '낙안'이라는 소상팔경의 개념을 전승한 「명사낙안」이 해당된다. 다만 「명사낙안 진우도」 이외에는 「동백군락 아동도」, 「삼십리방 낙동제」, 「포효무제 연대봉」처럼 명승형을 포함하고 있어서 표제어 구성 방식은 일관성이 없다.

(2) 소상유사형

장소와 기상 현상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경색이 결합된 소상유사형 현대팔경은 「청도8경」과 「해남8경」이 전래팔경과 동일한 한자어 조합의 경을 만든 사례이다. 부분적으로 소상유사형

경을 포함한 사례는 「시흥9경」의 「관곡지연향」·「오이도낙조」, 「구례10경」의 「노고단운해」·「반야봉낙조」, 「용인8경」의 「석성산 일출」·「어비낙조」, 「명지단풍(가평8경)」 등이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은 경의 명칭 표현 형식은 다르지만, 경색을 지칭하는 경이 다수 분포한다. 먼저 일정한 시간성과 관련하여 낙조와 일몰을 표현한 「사문진주막촌과 낙조(달성12경)」, 「서창들녘 낙조(서구8경)」, 「실안낙조(사천8경)」, 「함평만 낙조(함평8경)」, 「망해암 일몰(안양8경)」, 「목포대교 일몰(목포9경)」과 「엑스포다리 야경(명소8경)」, 「영일대&포스코 야경(포항12경)」, 「영남루 야경(밀양8경)」, 「천호지 야경(천안12경)」, 「광양만 야경(광양9경)」, 「여수밤바다/산단 야경(여수10경)」, 「돈암동로터리 야경(성북100경)」처럼 밤의 시간을 설정한 경이 많았다. 다음으로 「학저수지 여명(철원9경)」, 「호미곶 일출(포항12경)」, 「금오산 일출(하동10경)」, 「왜목 일출(당진9경)」, 「월악산 해돋이(진주8경)」, 「마랑리 동백나무숲과 해돋이(서천9경)」를 통해서 일출 경관의 선호도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기상 현상과 관련된 경은 「분산 전경 및 운무(김해9경)」, 「만어사 운해(밀양8경)」, 「덕유운해(함양8경)」에서 구름에 초점을 맞추었고, 「진양호 노을(진주8경)」과 「사천읍성 명월(사천8경)」이 있다. 그리고 「광덕산 설경(천안12경)」, 「함백산의 설경(태백8경)」, 「마산봉 설경(고성8경)」에서 눈 내린 겨울과 「비봉산의 봄(진주8경)」, 「쌍계사의 가을(하동10경)」이 계절 경관을 지칭한다. 「광명한내의 사계(광명8경)」, 「선유대 사계(용인8경)」, 「죽장 하옥계곡 사계」·「경상북도수목원 사계(포항12경)」, 「연지공원 사계(김해9경)」, 「표충사 사계(밀양8경)」, 「상림의 사계(함양8경)」, 「광교산 사계(용인8경)」처럼 사계절 모두를 포괄한 경을 많이 선정한 점은 현대의 선호 특성을 보여준다.

(3) 명소체험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조합한 명소체험형에 「산책하기 좋은 명품 유림공원」·「유성온천 야외 족욕체험장(명소8경)」, 「덕산온천(예산10경)」, 「냉풍욕장(보령9경)」, 「유배문화체험촌(포항12경)」, 「개운산 체육시설(성북100경)」처럼 경의 명칭에서 장소의 기능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백마강 수상관광(부여10경)」, 「여수해상케이블카(여수10경)」, 「중랑천 자전거도로(성북100경)」, 「장항스카이워크(서천9경)」, 「천장호 출렁다리(청양10경)」처럼 탈 것과 관련된 장소명을 가진 경을 예시할 수 있다. 전래팔경에서 손님 보내기, 빨래방망이 소리, 나물 캐기, 낚시질, 달구경, 꽃놀이 등 일상적 활동이 경으로 제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대적 관광 행태가 드러난다.

(4) 명승형

Kang and Kim(199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래팔경에서 소상유사형(32.5%)과 명승형(33.9%)이 비슷하게 분포하지만,

현대팔경에서는 명승형이 압도적이다[5]. 연구 대상 816개 경 중에서 앞서 고찰한 세 가지 유형의 사례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명승형으로서 보편적인 현대팔경의 형식이다. 이렇게 명승형을 선호하는 것은 ‘대암산용늪(인제8경)’, ‘청평호반(가평8경)’, ‘함평 고막천 석교(함평8경)’, ‘메타세쿼이아길(순창10경)’, ‘춘향테마파크(남원20경)’처럼 장소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전달력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팔경의 명명 방식

(1) 네 글자로 구성된 명칭

팔경의 형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래팔경을 대표하는 소상팔경의 명명은 장소와 시간성이나 기상현상이 결합된 ‘경물+경색’ 형태로서 네 개의 한자로 구성된다. 이를 따른 현대팔경은 「청도8경」이며, 「가평8경」은 ‘명지단풍’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평호반’, ‘축령백림’처럼 조망대상으로서 장소를 지칭한다. 「해남8경」에서 ‘고천후조(고천암 철새도래지)’·‘달마도솔(달마산 도솔암)’·‘우항괴룡(공룡박물관)’은 한자 네 개로 구성되었지만 장소의 명칭일 뿐이다.

또한 「함양8경」은 조망점을 밝힌 ‘금대지리’, 일시적 경관과 계절성을 지칭한 ‘덕유운해’·‘상림의 사계’, 수경관 요소를 표현한 ‘칠선시류’·‘용추비경’, 식물요소인 ‘대봉절쭈’, 역사경관요소인 ‘서암석불’, 선비문화인 ‘화림풍류’인데, 글자 수를 네 개로 맞추었으나 경관요소의 유형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명명하였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정제되지 않은 표제어 구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13].

(2) 수식어를 사용한 명칭

전래팔경인 「임영팔경」의 「만리창해(萬里蒼海)」에서 조망 대상인 ‘창해’를 강조하는 ‘만리’라는 수식어가 사용되었다. 현대팔경 중에서 「강서8경」은 ‘죽도모연 오봉산’과 같이 모든 경의 명칭에 수식어를 넣었으며, ‘명품 구로올레길(구로9경)’, ‘인심 좋은 유성전통5일장(명소8경)’, ‘고생대의 보고 구문소(태백8경)’, ‘천년고찰 화엄사(구례10경)’, ‘사랑의 섬 외달도·춤추는 바다분수(목포9경)’는 고유명사화하여 특별한 장소 정보를 전달하려는 수식어를 덧붙이기도 했다.

(3) 일관성 없는 명칭 부여 방식

앞서 「함양8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맥락에서 「용인8경」은 ‘석성산 일출’, ‘조비산 조망’, ‘가실벚꽃’, ‘기흥호수공원’으로, 「하동10경」은 ‘금오산 일출과 다도해’, ‘섬호정에서 바라본 섬진강’, ‘쌍계사의 가을’, ‘화개장터 십리벚꽃’으로, 그리고 「구례10경」은 ‘노고단운해’, ‘수락폭포’, ‘오산과 사성암’, ‘천년고찰 화엄사’로 명칭 부여 방식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도 전래팔경과 다른 현대팔경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다.

IV. 결론

현대팔경은 선정 주체가 지자체이며 생활환경의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전래팔경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 78개 지자체가 선정한 현대팔경을 대상으로 하여 경의 대상과 내용, 팔경의 구성, 형식, 명명 방식에서 전래팔경과 다른 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현대의 경관 선호 양상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1) 현대팔경을 구성하는 경의 대상

첫째, 자연환경에서 산경은 원경의 산과 봉우리가 초점경관으로서 인지되고, 근경에서 독특한 지형을 가진 점적 경관요소인 바위, 동굴, 절벽 등 다양한 지형경관이 경으로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수경은 하천경관에서 강, 천, 계가 조망대상으로 인식되었으며, 수면보다 입체적 지형 특성을 가지는 계곡은 구곡과 함께 경관성과 이용성이 높다는 장점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경으로 선정하였다. 해양경관에서 광대한 수면, ‘치’·‘목’·‘꽃’과 같은 해안지형이 선호되고, 호소경관에서는 저수지, 습지, 늪보다 경관적 가치가 인식되는 호수의 선정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해수욕장과 약수터는 이용행태가 경 선정에 관련됨을 설명한다. 특히 물의 특정 지점과 흐름의 양상을 지칭하는 ‘탄’, ‘연’, ‘담’, ‘추’, ‘폭’이라는 전통적 수경에 대한 선호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식물요소는 전통적으로 즐겼던 소나무가 선호되었으며, 계절감을 제공하는 산수유, 이팝나무, 자작나무와 왕버들, 노거수, 숲, 그리고 단풍나무,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가로수로 형성되는 선형녹지도 경에 포함되었다. 또한 봄은 철쭉과 진달래, 벚꽃 길로 연출되고, 여름은 연꽃, 가을은 갈대와 억새로 특화된 계절감을 반영한다.

둘째, 현대팔경을 구성하는 경 중에서 인문환경 요소의 비율이 자연환경 요소보다 높았는데, 이것은 전래팔경의 분포와 상반된 결과이다. 인문환경 요소 중에서 현재까지 잘 보존된 자원인 역사문화유산은 6개의 현대팔경을 제외한 나머지에 모두 포함되었다. 왕릉과 묘역, 지역의 방어·군사시설로서 읍성, 산성, 진(陣), 전통마을과 민가 및 역사적 인물의 생가, 별서·누정, 그리고 현재까지 기능이 지속되는 사찰과 석불, 탑이 경에 해당되었다.

다음으로 관광지를 홍보하려는 현대팔경의 목적을 대표하는 여가관광시설에는 재래시장, 쇼핑몰 등 상업시설, 미술관·박물관·전시관 등 교양시설, 테마파크, 온천과 해수욕장 등 놀거리형 관광지, 특산물과 먹거리형 가로가 경의 대상이 되었다. 도시민의 일상적 휴양과 활동 공간을 지원하는 녹색기반시설에서 걷기 봄에 따른 산책로와 테마 거리가 포함되고 쉼터와 광장,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 그리고 자연성 높은 식물원·수

목원·삼림욕장·자연휴양림이 지역의 주요 명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산업유산에서 경관성 높은 목장, 재생된 폐탄광, 공업단지, 그리고 철도역, 터미널, 항구와 같은 운수·교통수단이 경에 포함되었다. 특히 바다와 하천 위에 세워진 대교는 랜드마크로서 선호도가 높았다.

셋째, 아름다운 대상을 조망하고 경관을 체험하는 목적을 가진 전래팔경과 달리 현대팔경의 선정 목적은 확장된 양상을 보인다. '구봉산 전망대'처럼 조망점을 제시한 경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망대상을 지칭하였다. 하지만 특정 조망점을 파악할 수 없는 연속적 경관과 함께 인문환경 요소의 유형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을 소개하거나 경관 이미지로 떠올릴 수 없는 축제나 특산물에 경에 포함되어 지역 방문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보여준다.

2) 현대팔경의 구조

첫째, 8개의 경으로 구성된 현대팔경이 50%를 차지하였으며, 보편적이지 않은 20개, 38개, 100개의 경은 관광지 홍보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성북100경」은 자치구라는 좁은 영역 내에서 100곳을 선정함으로써 경관성과 먼 장소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지자체를 대표하는 단일한 팔경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래팔경과 새로 만든 현대팔경을 함께 소개하거나 주제를 가진 현대팔경을 복수로 만든 경우, 일부 핵심 경관을 강화한 현대팔경을 추가한 '경중경' 구조가 해당된다. 또한 인접한 장소나 하나의 가시권을 가진 장소들을 포괄하거나 일정한 주제로 장소를 묶는 '복수의 경' 선정 방식 등으로 다양화된 현대팔경의 구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팔경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약해진다는 단점을 가진다.

둘째, 팔경의 형식을 고찰한 결과, '낙안'을 표제로 사용한 '강서8경'이 소상전형에 해당되고, 장소와 시간이나 기상현상을 결합한 소상유사형은 다수 나타났다. '낙조', '일몰', '야경'과 '여명', '일출' 경관이 선호되었다. 구름, 노을, 달, 눈 등 기상현상이 표현되고, 선호되는 봄이나 가을 이외에도 '사계절'이라는 시간을 경으로 선정한 점이 특징적이다. 명소체험형은 탈 것과 체험이 강조된 관광 행태를 보여준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명승형 현대팔경은 장소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어서 선호되었으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관을 포함한 경우, 구체적인 조망점 혹은 조망 행위에 대한 정보를 읽을 수 없다[12].

셋째, 소상팔경으로부터 전래된 '경물'과 '경색'을 지칭하는 한자 네 개를 조합한 명명 방식 대신 현대팔경에서는 글자의 숫자만 네 개로 맞춘 사례가 있다. 또한 수식어를 붙여서 장소를 설명하는 등 명명 방식이 다양했다. 하지만 경의 경관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하나의 팔경 내에서 명명 방식의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전래팔경식 명명은 특정 경관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며 조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3) 현대팔경 고찰의 의의

우리나라의 대다수 지자체가 문화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팔경을 적극 이용함으로써 고려시대부터 전래된 팔경 문화의 명맥이 이어지는 점은 고무적이다. 현대팔경은 지역 공동체가 오랜 시간 쌓아온 역사적·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다[13]. 또한 지자체가 현대팔경을 선정·관리함으로써 경관의 공공성과 대중이 공유하는 공적 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현대팔경의 파급력은 대중의 경관 인식에 영향을 준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이익 창출에 효과적인 대상을 경으로 선정하는 양상은 전통적으로 경의 전제조건이었던 심미성을 약화시켰다. 또한 전래팔경이 오랫동안 공유되고 있다면 현대팔경은 소비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낮다. 실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에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현대팔경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세한 경관 변화를 포착하고 시간성을 제시한 명명 방식, 생활양식을 포함하는 문화적 요소 등 전래팔경에 내재된 경관적 가치가 현대팔경의 역할을 고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1) Kim and Bae(2006)는 당시 현대팔경의 추진기관이 도, 시, 군, 문화원, 신문사, 대학, 문화 모임 등 다양하다고 제시하였으나[10] 본 연구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소개된 현대팔경만을 대상으로 한다.
- 주2) 이러한 경의 유형 분류 작업은 양적 연구 방법론을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나 질적 연구로서 경관 대상의 분포와 선호 양상을 이해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주3) 경기도 성남시는 '벚꽃8경'을 선정하여 분당중앙공원,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 상대원 시설녹지대 등 벚꽃이 아름다운 여덟 곳을 제시하였다.
- 주4) 한국조경현장(2013)에 구분한 조경의 대상 중에서 현대팔경을 구성하는 경의 기능을 설명하는 항목으로 녹색기반시설, 역사문화 유산, 산업 유산, 여가 관광 공간을 선택하였다.

REFERENCES

- [1] Son, K. S.(2000). The Korean Nature,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the Collection of General Korean History Books.
- [2] An, J. L.(1997). A Study on the Sosangpalkyung(瀟湘八景) poetry, Doctoral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 [3] Go, Y. H.(2003). Poems and Paintings of Koryo and Choson Dynasties on the Eight Views of Xiao-Xiang Rivers, Dongbanghag, 9(-): 217-243.
- [4] Choi, K. S.(1989). A study on the structure of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from a viewpoint of "kyo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5(4): 133-139.
- [5] Kang, Y. J. and Kim, Y. R.(1991). A Study on the Type and the Spatial Location of Pal-Kyong(eight scenery) in Korea,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9(2): 27-36.
- [6] Shin, S. S. and Rho, J. H.(1998). A Study on the Rinterpretation of ChonJu Palkyong for Improvement of Landscape Identity, Journal of

-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6(4): 25-35.
- [7] Rho, J. H. and Lee, K. W.(2010). Retrospective Lntia of Historic Spots and Spectacles of Baekje's Sabi Period, Represented in Buyeo's Palkyung.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8(3): 14-28.
- [8] Rho, J. H.(2011). A Study on the Transmission Process of Yeosu-Palkyung in Old Poems and Map.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9(1): 14-27.
- [9] Kwon, J. Y., Kim, S. K. and Sung, J. S.(2016). A Study on the Contents and Distribution of Palgyeong in Gangneung Area,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4(2): 16-26.
- [10] Kim, J. H. and Bae, H. M.(2006).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Selection Process in the 8 Great Views,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1(2): 179-189.
- [11] Kim, J. H. and Ahn, H. K.(2009). A Study on the Type of Daegu and Gyeongbuk 8 Great Views and the Structure of Scenic Resources-Basic Data Analysis for the Use of Cultural Tourism Resource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5(11): 291-298.
- [12] Song, M. J. and Son, I.(2011). The Landscape Analysis of The Modern Eight Famous Views(八景): A Case Study on The 12 Cities and Counties in the Gyeongsangnam-Do.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23(2): 77-99.
- [13] Jung, W. J. and Hwang, K. W.(2019). A Study on the Setting Process and Form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eonyu Eight Scenic in Gogunsan Island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7(4): 32-50.
- [14] Lim, E. J. and So, H. S.(2016).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Waterscape Elements from the Chapter 「Sancheon」 of the Volumes Gyeongsang-province in 「Sinjeung Donggukyeojiseungram」.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4(2): 1-15.
- [15] Choi, J. H.(2000). A study on Annhook's view of the scene on the 「Kwundongbyulkok」.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8(2): 49-62.

원 고 접 수 일: 2020년 2월 18일
심 사 일: 2020년 3월 10일 (1차)
: 2020년 3월 19일 (2차)
게 재 확 정 일: 2020년 3월 19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